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9년 12월 10일(화요일) 저녁 18시30분,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5명) - 김성아, 오유미, 이보운, 이원심, 장현수
교원위원(4명) - 양순실, 조문숙, 봉성화, 이민경

상정안건

1. 2020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 검토 및 자문

○ 위원장: 지금부터 제6기 3회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원장: 잘 지내셨는지요?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간사: 위원장님! 지난 2회 정기회의 시 1학기 교육과정운영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 검토 및 자문, 2019년 유치원 종합감사결과 보고, 2018년 결산서 자문 등에 대해 나눈 회의기록 승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네. 탑재된 회의록 확인하였습니다. *** 서명처리**

<안건1. 2020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 검토 및 자문>

○ 위원장: 오늘은 지난 주 회수한 2020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의견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자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원장: 결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이상의 평점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지만, 건의 및 개선할 점들도 있었습니다.

3세 학부모님 2분께서 **CCTV설치 관련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행복안심유치원 CCTV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 신청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공감한 것이 움직임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전체 관리가 쉽지 않은 강당, 실외놀이터, 산책로에 대한 CCTV설치 견적을 받아 신청했는데, 최종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CCTV를 무조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은 하고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 ○○○위원: **종일반 오후 간식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 원장: 유아들 먹거리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특히 종일반 오후 간식은 유아들이 유치원에 오래 있기 때문에 면, 빵, 밥, 떡 종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간식들로 구성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부족하지 않은지, 양을 체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아들이 느끼는 적당량과 교사 간의 생각 차이도 있고, 워낙 먹는 것에 대해 예민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 제공하는 양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중간에 더 챙겼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고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아이마다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먹기 싫은 데 유치원에서 식사왕이 되고 싶어서 먹으면서 힘들다고 하기도 해요.
- 간사: 선생님의 따라 더 먹이고 싶어 하는 선생님도 있고, 아이가 불편해 하면 그냥 적게 주거나, 그만 먹게 하거나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요는 하지 않되, 적게 달라고 해서 정말 조금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양은 주도록 의견을 맞추었습니다. 남기는 것은 어쩔 수 없구요.
- 원장: 고기반찬에 대한 의견도 있으신데, 유아들이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소스나 조리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님께서 보조해 주시는 분이 있지만 고기반찬만 하는 게 아니라, 밥, 국, 다른 반찬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조리법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탕수육 이런 걸 생각하면 쉽게 냉동을 사서 하면 되지만, 전 아이들에게 만두나 너겟 정도 외에는 냉동식품을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돈까스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구요. 더 맛있고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우리 아이는 워낙에 야채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유치원에서 급식하면서 그나마 식습관이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어요.
- 원장: 워킹맘들을 위해 조금 이른 시간 등원, 하원 저녁7시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맞춰 주시기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약수유치원 원장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른 시간 유아들이 오고, 늦게 가면 교원들이 그렇게 근무를 해야 하는데, 결국 업무와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피해가 어디로 갈까요? 저는 교육과 원아관리에 피해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유치원 교육철학을 지킬 수 없게 될 테니, 그 부분은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 간사: 방과 후 특성화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올해는 과목들이나 운영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는데, 5세에서 영어활동에 대한 의견정도가 있습니다. 5세 영어활동이 어떤가요?
- ○○○위원: 원어민이 있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한국강사들은 수업자료들이 많은데, 원어민 강사는 그냥 동화책 1권정도 준비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몸으로 놀이하고 재미있게 수업 하더라고요.
- 교원위원: 그런데 한국강사들은 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에 원어민 시범수업도 본 적이 있는데, 가끔씩은 팬찮지만, 매일 저렇게 수업한다는 건 염려되기도 했어요.
- 간사: 5세의 경우, 취학 전이라 유치원에서 영어를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강사의 입장에서 유아들이 어느 정도 학습성취도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굉장히 열심히 지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들이 다소 힘들어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에 강사님께 개선사항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위원: 수업에 있어 남, 여의 흥미, 발달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여아들이 언어에 관심이 많고, 남아들이 상대적으로 느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 ○

○ 원장: 원어민강사는 신분이나 전공확인이 쉽지 않고, 원어민강사는 한국강사대비 비용도 2~3배라 교육비 상한제에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4세 코엔코퍼케이션은 담임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회 때 컵타를 선보이는데, 유아들 박자감, 표현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재미있어 하나, 업체 측의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미흡해 지고 있는 것 같아 교사들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3세, 5세에 코엔코, 국악프로그램이 있으니, 4세에는 문학적 접근과 관련하여 극놀이 수업은 어떻게 고려도 해 보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 ○○○위원: 표현력에 도움도 될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 원장님: 혹시 변동이 생기면 운영위원회에 공지하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과 후 특활운영과 관련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럼, 2019년과 마찬가지로 운영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들: 네.(전원동의)

○ 원장: 산타선물이 부담되니, 원에서 선물을 통일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시던데요.

○ ○○○위원: 아이가 둘이면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 ○○○위원: 산타잔치 때 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챙기게 되더라구요.

○ 교원위원: 전에 일괄 했었는데, 그 때는 또 아이들이 선물을 보고 실망하기도 해서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변화를 준 건데, 다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

○ ○○○위원: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받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 위원장: 저는 산타선물의 교육적 효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노력해서 선물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 교원위원: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 ○○○위원: 일단 올해는 이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

항상 의견이 다양해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시간이 늦은 관계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수료와 졸업 전에 4회 정기회의로 6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기 록 자 : 조문숙(인)

2020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총104명 77장 회수(74.0%)

	교육과정운영	교육행사 및 현장학습	환경, 위생	급식운영	안전관리 및 교육	학부모교육	종일반	방과 후	홈페이지	유치원 운영위원회
합 계	338/77 4.4	350/77 4.5	333/76 4.4	321/77 4.2	339/77 4.4	325/77 4.2	211/47 4.5	339/77 4.4	315/75 4.2	306/75 4.1

3세

- 교육과정에 만족합니다. 선생님들 지도도 훌륭하세요.
- 특별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본과 보통의 원칙에 충실한 뜻심 있는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 기본에 충실한 약수교육이 좋습니다.
- 첫째 때부터 매우 만족하고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때 뵈었던 선생님들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니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부모님께도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원감선생님도 원장선생님도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꼼꼼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 아이가 유치원 교육을 재미있어하고 잘 받아드리는 거 같아 교육적인 부분과 부담되지 않는 활동 등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 1년 유치원 생활동안 특별한일 없이 무사히 즐겁게 원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적응 잘 한 것 같고 남자 아이라 개구쟁이 같은 면도 많았을 텐데 선생님들께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행사 및 현장학습이 적절히 있어 아이가 흥미 있게 참여하고 매일 하는 영어를 즐거워합니다. 특성화 교육도 주5일 다양하게 진행되어 요일을 물어보고 그 날 있을 수업을 기대하며 등원합니다. 홈페이지도 잘 운영되어 지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뭐하나 놓치지 않고 골고루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펜션은 곳으로 선정해서 견학을 다녀오는 것이나 요리활동은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기본적인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위생이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운영 또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 어느 한 면에 치우침 없는 교육구성. 영어 5회 수업. 모든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참여.
- 늘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살짝 아쉬운 점은 CCTV가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면, CCTV의 설치입니다. 아직까지는 유치원에 CCTV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 자체만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건의 드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종일반 하원 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원 시키는 어른이 도착한 경우 아이가 이것만 하고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절하고 보내시던데, 하원 시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아이의 즐거움이 조금 더 유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2018년 종일반 이용 시 하원 후 아이가 배고프다고 한 적이 거의 없는데, 2019년에는 하원 후 배고파하는 아이를 보면 예년에 비해 간식이 적어진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간식 제대로 챙겨주세요.
- 간식이 좀 더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구성되면 좋겠습니다.(특히 오후)
- 1층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 온수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아침 우유간식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메뉴 중 고기반찬이 더 다양한 조리법으로 해주시거나 다른 메뉴로 대체되면 좋겠어요. 집에서 고기를 잘 먹는데 유치원에서는 고기반찬이 별로라고 하네요.
- 원에 가져가는 아이물품(장난감 등)의 최소화, 산타잔치는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이 되므로 원에서 선물을 통일하고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챙기면 좋겠음, 유치원가방 자체의 무거움
- 워킹 맘들을 위해 조금 이른 시간등원+ 저녁시간 하원(7시)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차량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매번 조금씩 늦습니다.

○

4세

- 감사합니다.
- 아이가 유치원을 참 좋아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 주위 엄마들에게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유치원의 교육방침과 생활교육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는 약수유치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우리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과 즐거운 추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에 만족합니다. 선생님들 지도도 훌륭합니다.

○

- 시기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잘 알려주셔서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좋습니다.
예) 삼일절에는 삼일절관련, 한글날에는 한글날 관련.
- 항상 아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성교육 Program이 좋았다. 직장인 부모들을 배려한 주말을 이용한 행사가 좋았다.(특히 운동회, 상담 등)
원장님 원감님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들.
- 수업시간 중에 학습활동 모습을 보게 비디오로 녹화해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 식단은 훌륭하지만 고기반찬 횡수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 시 공지사항이 계속 화면에 떠서 불편하였다.(한번 확인하면 자동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통신문 또는 체크 후 유치원으로 회신해야 되는 문서를 보낼 때 낱장의 종이가 구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에 통신문이나 문서를 넣을 수 있는 파일이
나 지퍼가 있는 주머니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5세

- 항상 아이들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원 시 아이들이 원장, 원감선생님과 웃으며 인사하고 부모와 헤어짐의 인사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
- 여러 영역이 골고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결과보다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
는 점을 가르쳐 주신 점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육활동에 힘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먹을거리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들로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옵니다. 시설보수나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주제별 교육해 주셔서 취학 전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약수 파이팅!!
- 행사시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년 동안 만족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계별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연계수업도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아 만족합니다.
- 2년 동안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행사 환경 급식 모든 면에서 만족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약수유치원 원생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이들이 둥글둥글 모난 부분 없이 참 착하고 순하다고 느낍니다.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유

치원 교사 분들의 역량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이가 운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3년간 약수유치원에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별다른 트러블 없이 참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교사들의 지도나 대처 등 만족

- 홈페이지가 아닌 앱을 통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좌이체도 납부하는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카드결제? 월별로 금액이 균등하게 원비가 납부 되었으면 합니다. 3개월씩 다른 항목이 아니라...

- 메모, 쪽지, 통화 등으로 수시로 아이의 원 생활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 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반면 전혀 컨택포인트가 없어 아이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분도 계시는데 상시 연락 메모 열람 등이 가능한 온라인 앱이 없는 걸 감안하면 향후 개선되면 좋을 사항 같습니다.

- 아이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흥미롭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앞서서만 영어수업 말고 말만 따라하는 것 말고 사물을 이용한 (놀이 노래하며 춤, 종이접기) 영어활동이 되면 좀 더 잘 따라하고 오래 기억할 것 같네요.

홈페이지(모바일) 활동사진 저장 시 메인화면으로 튕기는 현상이 계속됨 최근 한 달 전부터는 관리가 되었는지 그런 현상은 없지만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함.

간혹 가정통신문에 안내가 잘 안되어 있어 원에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현장 체험은 아이들이 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 빨리 진행해야 되는 체험(예를 들어 썩 보고 썩 만지고 지나가는)말고 그런 체험 아니어도 좋으니 아이들 다 같이 활동하는 즐거운 체험이었으면 함(ex) 숲에서 뛰어놀기, 숲에서 그림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등등)